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십계명 중 제 3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이라는 말은 함부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즉 그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단순히 그 이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의 첫 시작은 이름을 부르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부모님의 함자를 귀하게 생각해서 함부로 부르지 않고, 부르더라도 무슨 자, 무슨 자 쓰신다 하며 부모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이름을 귀하게 대하는 것이,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행위는 성경 필사에서도 나타내는데,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필사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엘로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예를 들면, 신(神)이라는 표현은 모든 신들을 가리킬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까? 세상에는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유일한 하나 밖에 없는 **진짜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당시에 신으로 여겨왔던 수많은 존재들, 하늘, 해, 달, 바다, 산, 강, 동물들처럼 당시에 신으로 신봉되어 왔던 수많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유일무이한 진짜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야훼**는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알려준 특별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자신의 특별한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 귀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하게 여겼고, 필사자들은 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 이름을 적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필사자들은 그 이름을 적기 직전에 *미크바*라고 불리는 정결탕에서 목욕을 했고, 옷도 단정하게 가다듬었습니다. 또 마음속으로는 *리쉬미*라고 하여 ‘그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는 의도’를 품고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심지어는 고대 유대 랍비 문서에 의하면 서기관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적기 시작하면, 설령 왕이 지나가며 문안 인사를 건네더라도 절대로 고개를 들거나 대답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둘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이름을 쓰는 것에만 온 정신을 집중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 이름 자체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 부모가 욕을 먹든지, 높임을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든지 아니면 높임을 받으시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매순간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9.20 여러분의 가족 이목사

주일오전예배 말씀요약

출애굽기에는 성경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나일강의 물이 온통 피로 변하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온 나라를 뒤덮으며, 태양이 빛을 잃고 삼일동안 온 나라가 어둠으로 뒤덮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그 큰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기적까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마른 하늘에서 먹을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기적들도 오늘 벌어지는 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벌어진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역모임

1. 내가 생각하는 인생 최고의 기적이나 응답은 주로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건강, 재정, 진로 등)이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인가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나눠봅시다.

2. 거지 여인이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과, 왕의 신부가 되어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은 신분의 차원에서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순한 '피조물'이나 '수혜자'가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신부(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 내 삶에 실감 날 때, 나의 가치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